

오세아니아부터 조선까지... 시공 넘나드는 '광양-뮤강스'

전남도립미술관 '마나-모아나', 인서리공원 '예술과 치유' 등 풍부한 전시 선보여

광양시가 일 년 중 가장 설레고 낭만 가득한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오세아니아부터 조선 서화까지 시공을 넘나드는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광양-뮤강스'를 추진했다.

광양에는 전남도립미술관, 광양예술창고, 인서리공원, 포스코미술관 등 격조 높은 전시 공간이 곳곳에 자리해 연말 분위기를 한층 풍성하게 만든다.

일몰 맞닿이기도 한 전남도립미술관에서는 현재 특별전 「마나 모아나(Mana Moana) - 신성한 바다의 예술, 오세아니아」가 성황리에 전시 중이며, 23일에는 초대전 「김선두 - 색의 결, 획의 숨」이 개막한다.

「마나 모아나 - 신성한 바다의 예술, 오세아니아」전은 프랑스 케브랑리-자크시라크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이 공동 기획한 순회전으로, 오세아니아 지역의 독창적인 예술과 신화, 항해 문화를 국내에서 깊이 있게 조명한다.

「마나(mana)」는 조상의 신성한 힘을, 「모아나(moana)」는 모든 생명을 품는 바다를 의미하며, 카누·장신구·의식 관련 유물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바다를 경계가 아닌 연결의 길로 바라보는 오세아니아 특유의 문화 미학을 경험할 수 있다. 전시는 2026년 1월 4일까지 이어진다.

23일 개막하는 「김선두 - 색의 결, 획의 숨」전에서는 한국화의 현대적 가능성을 꾸준히 탐구해 온 김선두 화백의 40여 년 예술 여정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전통 한지인 장지 위에 동양화 분채와 안료를 섞은 색을 수십 번 쌓아 올리는 「장지 기법」은 오랜 수법의 흔적이

자 작가의 핵심 미학을 보여준다.

전남도립미술관 앞마당을 가로지르면, 야외 전시장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는 공간 속에서 새하얀 색채와 아기자기한 소품으로 꾸며진 광양예술창고가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광양예술창고는 '미디어A'와 '소교동B'로 구성돼 있으며, 천장을 마감하지 않은 목재 트러스 구조를 그대로 살려 폐창고의 역사와 감성이 어우러진 독특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선사한다.

광양 원도심 골목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고 있는 인서리공원의 반창고갤러리에서는 수호갤러리가 기획한 「예술과 치유(ART AND HEALING)」전이 오는 31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는 요셉 보이스의 '사회적 조각(Soziale Plastik)' 개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예술이 개인과 사회를 잇는 치유의 매개가 될 수 있음을 조명한다.

특히 백남준, 김창열, 이강소, Asao Kawahara, Liz 등 국내외 작가 11인이 참여, 프로그래머 치유·성찰·참여 예술에 이르는 네 개 색선으로 관람객의 몰입을 이끈다.

Park 1538 광양 내 포스코미술관에서는 일본의 대표적 한국 고서화 컬렉터 '이리에 다케오'의 유현재 컬렉션 「오백 년 만에 돌아온 조선 서화」전이 열리고 있다.

유현재는 교토에서 고미술품점 '이조당'을 운영하며 40여 년간 한국 미술품을 수집해 온 이리에 다케오의 당호로, 이번 전시에서는 조선 초기부터 근대에 이르는 산수화·기록화·궁중화·서예



등 미공개 컬렉션 38점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추사 김정희의 시고, 연담 김명국의 달마도, 금재 김득신의 해암응일도, 석봉 한호의 석봉첩 2책 등 조선시대 대표작을 소개하는 거장들의 작품이 총망라돼 있어 한국 서화의 정수를 감상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전남도립미술관, 광양예술창고, 인서리공원은 크리스마스 당일 정상 운영하나, 포스코미술관은 크리스마스 당일 휴관한다.

이현주 관광과장은 "로맨틱하고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다면, 격

조 높은 전시와 독특한 분위기를 갖춘 문화예술도시 광양 여행을 추천한다"며 "연말을 맞아 일상에서 벗어나 예술과 여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여행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운동주의 유고를 보존한 정병욱 가족과 웅장한 야경을 자랑하는 이순신대교 등 이번엔 소개되지 않은 숨은 명소들도 곳곳에 자리하고 있고, 계절의 맛을 담은 감칠맛 나는 먹거리 또한 풍부하다"며 "소중한 분들과 함께 보고, 느끼고, 맛보는 오감 만족 광양 여행을 꼭 계획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광양/신선호 기자

보성군, 시간이 머문 집, 역사가 살아 숨쉬다

'보성 봉강리 영광정씨 고택'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보성군은 지난 18일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이 '보성 봉강리 영광정씨 고택'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조선 후기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역사와 민속 문화를 온전히 간직한 점이 종합적으로 인정된 결과다.

영광정씨 고택은 영광정씨 정순일(1609~?)이 봉강리에 정착한 이후 400여 년간 대를 이어 유지·전승돼 온 주거 유산이다.

일제강점기 항일운동과 근대기 민족운동, 해방 이후의 사회적 사건 등 근현대사 축적된 생활사 현상으로서 역사·사회적 가치가 높게 평가됐다.

고택 터는 한국 풍수지리 전통에서 길지로 전해지는 '영구하해(靈龜下海)' 형국 가운데 거북의 머리에 해당하는 지점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풍수 사상 전한 인물로 알려진 '도선국사'의 언급도 전해진다.



현은 정도삼이 자신의 호를 '구정(龜亭)'이라 하고 고택을 '거북정'으로 칭해 온 점은, 풍수 인식이 가문의 정체성과 경관 인식에 반영된 사례로 해석된다.

건축 구성은 안채와 사랑채가 마당을 사이에 둔 2차형 배치로, 호남 지역 민가의 보편적 형식을 보여준다.

특히, 찌자형 안채는 보성 지역 민가의 특징으로, 배면에 사적 공간과 수납공간을 둔 구성은 당시 생활 방식과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고 있다.

고택 서측 계곡 건너편에는 일제강점기 한학 교육과 외부 접객, 제실 기능을 담당했던 '삼의당(三宜堂)'이 위치한다.

보성/김운기 기자

을사년 보내고, 활기찬 병오년 맞이하기 위한

국악으로 송년회 대신하세요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12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국악의 향연)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묵었던 한 해를 털어버리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위해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이 준비한 가·무·악 종합공연으로 기악합주 〈남도시나위〉, 판소리 흥보가 중 〈제비노정기 대목〉, 무용 〈강선영류 태평무〉, 남도민요 〈새타령〉, 무용 〈장구춤〉, 사물놀이 〈판굿〉까지 6작품을 선보인다.

각기 다른 악기의 증후적인 선율로 함께 만들어 낸 기악합주 〈남도시나위〉를 시작으로, 흥보와 놀부 형제의 이야기로, 다리 다친 제비를 치료해 준 흥보에게 은혜를 갚고자 박씨를 몰고 다시 흥보를 찾아가는 제비의 여정을 그린 대목인 흥보가 중 〈제비노정기 대목〉, 무용 〈강선영류 태평무〉, 남도민요 〈새타령〉으로 무대를



꾸민다. 이어지는 무대로는 다양한 장르 가락과 구성으로 선보이는 〈장구춤〉, 대열을 만드는 여러 진법놀이와 개인적인 기량을 엿볼 수 있는 〈판굿〉까지 선보인다.

진도/오재명 기자

고흥군은 천경자 화백 추모 10주기 리마스터전(RE:Chun Kyung-Ja 환상여행)에 힘입어 12월 17일부터 31일까지 고흥아트센터 2층 전시실에서 천경자 화백의 작품과 유품을 중심으로 한 상설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 리마스터전은 천경자 화백의 타계 10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고흥인 고흥에서 개최된 전국 유일의 단독 전시로, 고흥아트센터에서 지난 10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됐다.

고흥군, 천경자 화백 작품과 유품 상설전 운영

고흥아트센터서 12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시

이에 고흥군은 천경자 화백의 대표 채색화인 〈길레연니〉, 〈생태〉, 〈아! 무정〉 등 10여 점을 선정해 레플리카 작품을 전시하고, 유족이 제공한 친필 편지와 엽서, 사진 등 40여 점과 이이남 작가의 미디어아트 작품을 포함해 총 50여 점을 한자리에

서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아울러, 고흥아트센터 2층에서 열리는 이번 상설 전시와 함께 1층에서는 지역사회와 공동체가 함께하는 '고흥관광 전국사진공모전' 전시도 동시에 열려, 관람객들에게 다채로운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

할 예정이다. 이번 상설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군 문화체육과 관계자는 "이번 상설 전시를 통해 천경자 화백의 예술 세계를 보다 많은 관람객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천경자 화백의 작품과 예술 정신을 계승·확산할 수 있는 전시와 선양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국민 내로물 밖으로
보다나인 농어촌

농지

지가 있다면

농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농지

금이 있습니다

농지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담·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